지상백고좌

서울 금강선원장 혜거 대종사

“집착 않고 마음 쓰라…‘금강경’에 담긴 부처님 가르침”



혜거 대종사는… 1959년 삼척 영은사에서 탄허 스님을 은사로 득도, 김제 흥복사 등에서 수선안거했다. 1988년 금강선원을 개원했고, 〈한암대종사문집〉과 〈탄허대화상문집〉 편찬위원장을 역임했으며, 2005년 탄허불교문화재단 제7대 이사장으로 취임했다. 불교방송 ‘자비의 전화’ 상담과 경전 강의, 불교TV 경전 강의 등을 통해 부처님의 가르침을 설파했다. 현재 금강선원 선원장을 비롯해 동국역경원장, 한국전통불교연구원 원장, (사)아시아태평양공동체 이사, 대원정사 회주, 탄허기념박물관 관장, 대한불교조계종 포교원 청소년 심성개발위원회 위원장 등을 맡고 있으며 2018 포교대상 대상을 수상하였다.

눈이라도 한바탕 내릴 것 같은 날씨에 서울 자곡동에 위치한 탄허기념불교박물관을 찾았다. 탄허기념불교박물관은 도심에 있지만, 큰 길에서 조금만 걸어 들어가니 산중 사찰처럼 고요하다.

서울 금강선원장 혜거 대종사의 인터뷰는 탄허기념불교박물관에서 진행했다. 혜거 스님은 삼척 영은사에서 탄허 스님을 은사로 득도, 탄허 스님 회상에서 사교와 사집을 공부했다.

요즘 근황이 어떠신지 여쭈었더니, “건강이 좋지 않아 작년 12월 이후 외부 사람을 처음 만난다”고 하셨다. 현대불교신문 독자들을 위해 시간을 허락해주신 혜거 스님께 감사한 마음과 함께 미안한 마음이 교차했다.

죄송한 마음을 추스르고 질문을 이어갔다. 지난해 11월부터 12월까지 열린 탄허 스님 열반 40주년 특별기획전에서 본 탄허 스님의 ‘섭심귀공(攝心歸空)’이라는 휘호의 의미가 궁금해서다. 필자의 질문에 스님은 친절하게 설명해줬다.

“마음을 가다듬어 공(空)의 세계로 돌아가라는 의미입니다. 보통 마음을 쓴다는 것은 탐진치의 마음을 쓰는 것입니다. 섭심이란 탐진치가 제거된 마음으로, 이런 마음을 쓸 때 공의 세계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금강경〉이 중요한 이유는

탄허기념불교박물관의 외벽에는 〈금강경〉 전문이 새겨져 있다. 혜거 스님께서는 금강경 병풍을 800벌이나 썼다. 금강선원은 매년 ‘〈금강경〉 독송대회’를 개최하고 있다. 스님께 〈금강경〉을 중시하는 이유를 여쭸다.

“〈금강경〉은 대승시경입니다. 대승불교가 중국으로 오게 된 것부터 알아야 합니다. 불교가 발생한 인도에서 불교가 없어진 것은 중생을 위한 공부가 아니라 나를 위한 공부이기에 그 자리가 없어진 것입니다. 대승은 ‘나’를 위한 공부가 아니라 중생을 위한 공부입니다. 〈금강경〉에서는 반복해서 ‘아상(我相) 인상(人相) 중생상(衆生相) 수자상(壽者相)’을 없애야 한다고 합니다. 사상이 없어진 그 자리가 무아(無我)입니다.”

대승의 첫 번째 경전이 〈금강경〉인데, 반드시 외우고 실천해야 하는 경이란다. 그래서 ‘〈금강경〉 독송대회’를 열어 대중들에게 〈금강경〉을 외우고 실천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한 것이다.

“〈금강경〉에 보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말씀합니다. 특히 ‘제10 장엄정토분’에 나오는 사구게는 이 경의 핵심이 들어있습니다.”

불응주색 생심(不應住色生心)
불응주성향미촉법 생심
(不應住聲香味觸法 生心)
응무소주 이생기심(應無所住 而生其心)

특히 ‘응무소주 이생기심’, ‘응당 머무는 바 없이 그 마음을 낼지니라’ 구절에 대해 혜거 스님은 설명을 이어갔다.

“마음 쓰는 법과 세상사는 방법 이 두 가지를 가르치고 있다고 할 수 있어요. 마음을 머무는 바 없이 보시를 행하는 것으로 잘사는 법을 가르쳐주셨어요. 색성향미촉법(色聲香味觸法) 어느 곳에도 물들지 않고 집착하지 않으면서 마음을 쓰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이것이 머무는 바 없이 마음을 잘 쓰는 법인데, 부처님께서는 〈금강경〉에서 한결같이 우리에게 내린 가르침입니다.”

스승 탄허 스님 원력 이어 譯經 매진
2016년부터 ‘화엄경소론찬요’ 번역 중
‘중생은 평등’… ‘화엄경’의 핵심 요지

금강경,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알려줘
“대승의 첫 경전… 반드시 외우고 실천”
중단됐던 독송대회, 올해부터 재개 예정

마음도 머무르면 집착이 돼 병이 되기에 머무름에서 벗어나야 한다. 머무름이 없으면 자유로운데 자유를 갈망하면서도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 중생심이다. 그동안 코로나로 ‘금강경 독송대회’가 중단됐지만, 올해부터 다시 시작할 것이라 한다.

스승 같이 역경보살의 길로

혜거 스님은 2016년부터 〈화엄경소론찬요〉 120권을 번역해 책으로 펴내고 있다. 이미 번역은 끝나서 원고가 출판사로 넘어갔다고 하니 늦어도 내년까지는 완간될 예정이다. 〈화엄경소론찬요〉 역경은 불교계의 큰 불사로 사람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탄허 스님께서 〈화엄경〉을 번역해 침체된 한국불교의 화엄사상을 꽃피웠듯이 혜거 스님의 역경으로 처처에 화엄의 향기가 가득할 것이다.

“영은사에서 탄허 스님의 〈화엄경〉 결사가 끝난 후 〈화엄경〉을 펼쳐 볼 엄두를 내지 못했지요. 몇 해 전 무비 스님께서 범어사에서 〈화엄경〉을 강의하시면서 서울에서도 〈화엄경〉 강의를 열어보라고 하셨어요. 그때만 해도 〈화엄경〉 강의는 생각도 못했는데, 우연히 병풍 뒤에 있는 청대(淸代) 도패 스님의 〈화염경소론찬요〉를 보고서 자신감을 얻었습니다.”

〈화염경소론찬요〉를 대본으로 해 탄허 스님의 번역서를 참고하면서 현대인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번역 불사에 들어간 것이다.

혜거 스님은 “씨앗을 뿌려 놓으면 새싹이 돋아나듯 인연법은 사라지지 않는다”면서 “영은사에서 출가해 행자시절에 〈화염경〉을 청강한 것이 연이 돼 〈화엄경소론찬요〉 120권을 번역하게 됐다”고 했다.

스승 탄허 스님의 ‘설령 알아듣지 못할지라도 들어두면 글눈이 생겨 안 들은 것보다 낫다’라는 말씀으로 오늘에 이르게 된 것이다.

방대한 〈화엄경〉을 읽을 수 없는 불자들을 위해 짧게라도 어떤 경전인지 말씀해 주시기를 요청했다.

“〈화엄경〉은 이 세상에 있는 불교 유교 도교 등 모든 종교의 총집합체이며, 종교의 종지를 가르치는 경전입니다. 부처님께서 〈화엄경〉을 가르치기 전과 가르친 후의 세상은 다릅니다. 부처님 이전의 사상은 전부 신본(神本)주의였어요. 신에 의해서 태어나고, 신에 의해서 살고, 신에 의해서 죽는 사상이 세계를 지배했습니다. 〈화엄경〉이 나오면서부터 신본주의에서 인본(人本)주의로 바뀌었는데, 그것이 바로 일체유심조(一切唯心造)입니다. ‘이 세상 모든 것은 마음에 의해서 나온다. 마음에 의해서 존재한다는 것’이 인본주의 사상입니다. 세상에 인본주의를 최초로 외친 분이 석가모니 부처님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부처님께서 〈화엄경〉에서 ‘일체중생은 평등하다’라고 설하셨는데, 이 말씀은 인도를 뒤흔들 정도로 큰 사건이었다.

“모든 중생은 평등하다는 것이 〈화엄경〉의 핵심요지입니다. 일체중생이 평등하다는 이 사상 때문에 왕족들로부터 공격을 받았지요. 또 신본주의에서 인본주의로 바뀌니 바라문들이 공격을 했어요. 그들은 부처님을 없애려고 했습니다. 이런 것을 배경으로 한 것이 팔상도 중 하나인 수하항마상(樹下降魔相)입니다. 나무 아래서 모든 마장을 한꺼번에 항복받은 분이 부처님입니다.”

13면에 계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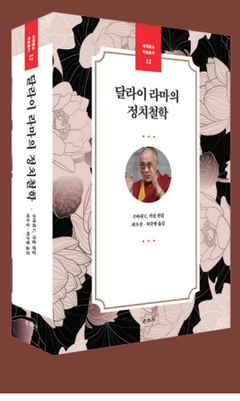
불교의 현대화를 추구하는 대원불교학술총서



붓다의 깨달음과 뇌과학

뇌의 구조와 작동원리를 이해하면 불교의 가르침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될 뿐 아니라, 어떻게 스스로의 마음을 이해하고 조절할 수 있는지 알게 된다.

문일수 지음 / 360쪽 / 25,000원



달라이 라마의 정치철학

티베트인이 겪어온 비극과 고통에도 불구하고 비폭력, 자비, 평화의 신념을 지켜온 달라이 라마의 정치철학과 사상을 담은 대표적인 100편의 글!

수바쉬 C. 카샵 편집, 허우성 · 허주형 옮김 / 876쪽 / 50,000원



불교심리학의 새로운 지평

전통적인 불교명상과 불교심리학을 현대의 심리학 이론 및 실천과 융합하여 불교심리학의 새로운 전망과 혁신적인 관점을 보여준다.

모리츠 키 편집, 이성동 · 김태수 옮김 / 932쪽 / 55,000원

고대부터 현대까지 한 권으로 보여주는 한국불교의 역사!
한국불교통사
김경집 지음 / 392쪽 / 20,000원

서양철학자들이 불교에 심취한 이유는 무엇인가?
에리히 프롬과 불교
박찬국 지음 / 316쪽 / 20,000원

인류의 위기에 대한 인식 전환과 새로운 실천 방향 제시!
활생문명으로 가는 길
김규칠 지음 / 368쪽 / 25,000원

불교와 고대 그리스로마 철학이 보여주는 놀라운 유사성과 상호 영감!
스토아철학과 서양불교
패트릭 어셔 지음, 이재석 옮김 / 152쪽 / 12,000원

불교에서 가장 중요한 주제인 마음(心)과 의식(識)에 대한 통찰!
불교의 무의식
윌리엄 왈드론 지음, 안성두 옮김 / 456쪽 / 23,000원

백운·태고·나옹의 선어록에 대한 문예 미학적 접급!
한국 선어록의 문예 미학
전재강 지음 / 312쪽 / 20,000원

가장 뛰어난 제자 24인의 삶과 수행, 깨달음의 과정을 담다!
부처님의 위대한 제자들
냐나뽀니까 장로 외 지음, 김충현 옮김 / 728쪽 / 40,000원

<근간>
불교 윤리 1, 2 / 다니엘 코조트 외 지음, 이동수 옮김
윤회 / 로저 잭슨 지음, 윤희조 옮김

비구니 승가에 대한 차별이 과연 부처님의 본뜻이었을까?
비구니 승가 설립의 역사
아날라요 지음, 김철 옮김 / 360쪽 / 20,000원

직접성과 즉각성의 전통적 해석에 대한 비판과 새로운 관점!
새로 보는 선불교
베르나르 포르 지음, 정천구 옮김 / 696쪽 / 45,000원

미국과 캐나다 등 서구권 대학의 철학과 교재!
철학으로서의 불교
마크 시더리츠 지음, 강병화 옮김 / 648쪽 / 38,000원

도서출판 운주사 서울시 성북구 동소문로 67-1 성심빌딩 3층 ● 전화 (02) 926-8361 ● 팩스 0505-115-8361 ● 주문 (02) 3672-7181 ● 다음카페:도서출판 운주사 www.cafe.daum.net/unjubooks